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정도영¹, 이영미^{2*}

¹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²강원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among safety accident, impulsiveness and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of elementary students

Do-Young, Jung¹ and Young-Mee, Lee^{2*}

¹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와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생 558명으로 자가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자료수집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율은 대상자의 51.5%로 나타났다. 장소로는 학교와 집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대상자의 안전사고발생은 성별, 학년과 학교생활태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안전사고 발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권위주의적 통제 태도, 과보호적 태도, 성취적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과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aim of the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afety accident, impulsiveness and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of elementary students. The study was also done to acquire basic information on safety education program to help students be more aware of safety. A research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5 to 24, 2010 by means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558 elementary students. Safety accident occurrence of subject is 51.3%, and the most frequent place was on school and home around. The safety accident occur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grade and the level of school life attitude. The safety accident occurrence correlated positively with authoritarian control, overprotection, and achievement, as defined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not with impuls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afety education program are needed to prevent the safety accidents, and to change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of elementary students.

Key Words : Impulsiveness,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Safety acci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의학발전과 더불어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사회는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은 감소되었으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갖가지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정신적·경제적 손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고와 재해로 인한 인간의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최대의 숙제이며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특히,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으며[1], 우리나라에서도 사고사망 분포의 두드

*교신저자 : 이영미(ymllee@kangwon.ac.kr)

접수일 11년 11월 10일 수정일 (1차 11년 11월 21일, 2차 11년 11월 30일, 3차 11년 12월 02일, 4차 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 수준이 중년의 사고발생 수준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2].

또한 200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의 사망 사고율이 인구 10만 명당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5.6명보다 우리나라가 8.7명으로 3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3],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아동의 주의력과 사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행동이 민첩하거나 상황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조그마한 신체적 활동에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4], 경험도 부족하여 사고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다[5].

심리학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저학년과는 달리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어 추상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가정이 가능해서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여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6].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강한 시기에 초등학교생들에게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학령기 아동은 호기심이 많은 특성이 있고 탐구하려는 충동성이 강하며, 규칙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특성이 있어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7]. 그래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의 충동성과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태도를 길러서 행동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린이의 생활 습관과 행동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8],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9],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안전사고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전의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사고 실태나 안전교육실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11], 안전사고와 아동의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실태를 알아보고, 안전사고와 아동의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계를 확인하여, 아동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S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들로, 배부된 설문지는 600부 이었으나 자료가 미완성된 자료를 제외한 558부를 본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성별, 학년, 가족 구성, 학교생활, 성적으로 구성되었다.

2.2.2 안전사고 발생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실태

안전사고 발생실태에 대한 내용은 사고횟수, 사고종류, 사고발생장소, 다친 부위, 사고관련 입원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태에 대한 내용은 부모의 안전교육실시 정도와 학교의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받은 내용, 교육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2.3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

어머니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박성연과 이숙[12]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정태도의 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정적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며, 권위주의적 통제의 태도의 4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태도로서 평가되며, 합리적인 지도의 태도의 7문항은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아동의 행동에 관련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보호 태도의 2문항은 점수가 클수록 자녀를 과보호하려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취태도의 4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지적·사회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배려의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며, 적극적 참여 태도의 1문항은 자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관성 있는 규제의 태도 1문항은 자녀로 하여금 정해 놓은 규칙을 지

키고 따르게 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이어서 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하위 7개 항목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늘 그렇다’의 1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의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18이었다.

2.2.4 충동성 척도

아동의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aratt[13]의 충동성 척도를 이현수[14]가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인지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18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강원도 S시 소재의 3개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승인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안전사고 발생실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차이 검정은 χ^2 -test로 분석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따른 충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t-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안전사고, 충동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성 정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실태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한 후 학생의 51.3%가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1회의 경험이 18.6%, 2회의 경험이 11.6%, 3회의 경험이 10.0%, 4회의 경험이 2.7%이었으며, 사고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도 8.1%를 나타내어 학생들의 사고 발생

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고 종류로는 타박상과 칼에 베임이 46.6%로 가장 많았고, 유독물질 사고도 11.6%, 자전거 사고가 9.1%, 교통사고가 7.2%, 화상사고가 3.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로는 학교주변의 길에서 16.8%로 가장 많았고, 집주변이 14.2%, 놀이터나 공원이 13.3%, 집안이 12.7%, 학교운동장이 10.4%, 학교건물 안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는 팔과 다리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손, 발이 19.4%, 머리가 3.2%, 얼굴이 2.5%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한 경우도 19.9%가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Table 2] Safety accident occurrence of elementary students

실 태	분류	빈도	백분율(%)
사고 횟수	0 회	272	48.7
	1 회	105	18.8
	2 회	65	11.6
	3 회	56	10.0
	4 회	15	2.7
사고 종류	5 회 이상	45	8.1
	교통사고	40	7.2
	자전거사고	51	9.1
	낙상사고	15	2.7
	화상사고	19	3.4
	물에 빠짐	6	1.1
	타박상, 칼에베임	260	46.6
	유독물질	65	11.6
	기 타	102	18.3
	사고 장소	학교건물 안	35
학교 운동장		58	10.4
학교주변이나 길		94	16.8
집안		71	12.7
집주변		79	14.2
놀이터나 공원		74	13.3
학원		20	3.6
게임방		1	0.2
기타		126	22.6
다친 부위		눈	3
	얼굴	14	2.5
	머리	18	3.2
	팔, 다리	307	55.0
	손, 발	108	19.4
	뼈, 치아	13	2.3
	귀, 고막	2	0.4
	가슴, 배, 등	6	1.1
	기타	87	15.6
	사고관련 입원유무	있다	111
없다		447	80.1

3.2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예방 교육실태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예방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가정에서의 교육횟수를 보면 3-4회 하신다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5회 이상 하신다가 40.5%, 1-2회 하신다가 13.4%, 0회 하신다가 2.7%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횟수를 보면 1-2회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3-4회가 34.1%, 5회 이상이 26.9%,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2.9%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보면, 응급처치 내용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물놀이 안전이 20.4%, 화재안전이 19.2%, 교통안전이 16.3%, 학교안전이 7.2%, 가정안전이 3.8%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비디오와 DVD상영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이 36.4%, 실습과 체험이 7.2%, 사진과 슬라이드가 5.0%로 나타났다[표 2].

[표 2]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예방 교육
[Table 2] Safety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실태	분 류	빈도	백분율(%)
부모안전 교육실시 횟수	0 회	15	2.7
	1-2회	75	13.4
	3-4회	242	43.4
	5회 이상	226	40.5
학교안전 교육실시 횟수	0 회	16	2.9
	1-2회	202	36.2
	3-4회	190	34.1
	5회 이상	150	26.9
교육받은 내용	가정안전	21	3.8
	학교안전	40	7.2
	물놀이안전	114	20.4
	응급처치	146	26.2
	교통안전	91	16.3
	놀이안전	16	2.9
	화재안전	107	19.2
	여행안전	1	0.2
	중독안전	9	1.6
	질식사고예방	1	0.2
	심폐소생술	7	1.3
	기타	5	0.9
교육방법	수업	203	36.4
	실습, 체험	40	7.2
	견학	5	0.9
	비디오, DVD상영	273	48.9
	사진이나 슬라이드	28	5.0
기타	역할극	2	0.4
	기타	7	1.3

3.3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안전사고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안전사고의 차이는 성별 ($p<.001$)과 학년($p=.002$), 학교생활태도($p=.019$)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에서는 남학생 중에서 사고를 경험한 학생이 62.4%,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37.6%로 나타났고, 여학생 중에서 40.1%가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었으며, 59.9%는 안전사고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안전사고 발생율을 보면, 4학년 중에서 60.4%는 사고 경험이 없었으며, 39.6%가 사고경험이 있었고, 5학년 주에서는 42.6%가 사고 경험이 없었고, 57.4%가 사고경험이 있었으며, 6학년 중에서는 45.0%가 사고경험이 없었으며, 55.5%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태도가 즐거운 학생 중에서 53.1%가 사고경험이 없었으며, 46.9%가 사고의 경험이 있었고, 학교생활태도가 보통인 학생 중에서는 42.5%가 사고 경험이 없었으며, 57.5%가 사고경험을 하였으며,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은 학생 중에서 2명 모두가 사고를 경험한 것을 나타냈다. 가족구성과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안전사고 발생율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표 3].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사고 발생율이 높았고, 학년에서는 5학년의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6학년, 4학년 순으로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태도에서는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을수록 사고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배경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afety accident occurrence to general characteristics

		안전사고발생			χ^2	P
		N	무	유		
성별	남	279(50.0)	105(37.6)	174(62.4)	27.573	<.001
	여	279(50.0)	167(59.9)	112(40.1)		
학년	4	164(29.4)	99(60.4)	65(39.6)	12.779	.002
	5	183(32.8)	78(42.6)	105(57.4)		
	6	211(37.8)	95(45.0)	116(55.0)		
가족 구성	엄마, 아빠, 나	459(82.3)	216(47.1)	243(52.9)	3.636	.457
	아빠, 나	11(2.0)	5(45.5)	6(54.5)		
	엄마, 나	14(2.5)	8(57.1)	6(42.9)		
	조부모, 부모,나	61(10.9)	35(57.4)	26(42.6)		
	조부 (조모),나	13(2.3)	8(61.5)	5(38.5)		
학교 생활 태도	즐겁다	337(60.4)	179(53.1)	158(46.9)	7.935	.019
	보통이다	219(39.2)	93(42.5)	126(57.5)		
	즐겁지 않다	2(0.4)	0(0.0)	2(100)		
성적	매우 좋다	43	21(48.8)	22(51.2)	2.465	.482
	좋다	298	145(48.7)	153(51.3)		
	안 좋다	203	102(50.2)	101(49.8)		
	아주 안좋다	14	4(28.6)	10(71.4)		

3.4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안전사고 차이

대상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안전사고 차이는 부모의 안전교육횟수가 많이 할수록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율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실시 횟수도 많이할수록 안전사고 발생율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4].

[표 4] 안전사고 예방교육실시에 따른 안전사고차이
[Table 4] Difference of safety accident occurrence to safety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안전사고 발생				
		N	무	유	χ^2	P
부모 안전교육 횟수	0 회	15	5(33.3)	10(66.7)	1.816	.611
	1-2회	75	35(46.7)	40(53.3)		
학교 안전교육 횟수	3-4회	242	118(48.8)	124(51.2)		
	5회 이상	226	114(50.4)	112(49.6)		
학교 안전교육 횟수	0 회	16	6(37.5)	10(62.5)	3.247	.517
	1-2회	198	99(49.0)	103(51.0)		
학교 안전교육 횟수	3-4회	185	97(51.1)	93(48.9)		
	5회 이상	150	70(47.3)	80(52.7)		

3.5 충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고유무 차이

대상자의 충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고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충동성에서는 사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 충동성은 49.2점이었고, 사고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는 50.6점으로 나타나, 사고경험을 한 학생의 충동성이 1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F=1.666, p=.096$).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로는, 권위주의적 통제의 점수가 사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3.7점이 사고를 경험한 학생의 3.5점보다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509, P=.012$), 과보호의 점수가 사고경험이 없는 학생의 3.3이 사고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는 3.0점보다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844, P=.005$), 성취의 점수가 사고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3.5점이 사고를 경험한 학생의 3.4점보다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392, P=.017$), 그 외 하위 척도인 합리적 지도와 애정,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태도에서는 사고를 경험한 집단과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5].

[표 5] 충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고유무 차이
[Table 5] Difference of safety accident occurrence to impulsiveness and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안전사고발생			
		무(272)	유(285)	F	P
충동성		49.2±10.2	50.6± 9.5	-1.666	.096
합리적 지도	애정	3.9± 0.9	3.8± 0.9	1.523	.128
	권위주의적 통제	3.8± 0.9	3.8± 0.9	0.930	.353
양육태도	과보호	3.7± 0.9	3.5± 0.9	2.509	.012
	성취	3.3± 1.1	3.0± 1.1	2.844	.005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3.5± 0.6	3.4± 0.7	2.392	.017
	규제	3.8± 1.2	3.7± 1.2	0.902	.367
일관성 있는 규제		3.9± 1.1	3.8± 1.0	0.477	.633

3.6 대상자의 안전사고,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

대상자의 안전사고는 충동성과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안전사고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태도($r=-.106, p=.012$), 과보호적 태도($r=-.120, p=.005$), 성취적 태도($r=-.101, p=.017$)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통제 태도이고, 과보호적 태도이고, 성취적 태도일수록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은 낮게 나타났다[표 6].

[표 6] 대상자의 안전사고,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

[Table 6] Correlation among safety accident, impulsiveness and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2	3	4	5	6	7	8	9	
	r(p)	r(p)	r(p)	r(p)	r(p)	r(p)	r(p)	r(p)	
안전사고 1	.071 (.096)	-.064 (.128)	-.039 (.353)	-.106 (.012)	-.120 (.005)	-.101 (.017)	-.038 (.367)	-.020 (.633)	
충동성 2		1	-.454 (<.001)	-.413 (<.001)	-.245 (<.001)	-.068 (.111)	-.335 (<.001)	-.281 (<.001)	
합리적 지도 3			1	.742 (<.001)	.341 (<.001)	-.029 (.493)	.605 (<.001)	.583 (<.001)	
애정 4				1	.419 (<.001)	.032 (.448)	.635 (<.001)	.582 (<.001)	
권위주의적 5					1	.451 (<.001)	.288 (<.001)	.258 (<.001)	
과보호 6						1	.104 (.014)	-.067 (.767)	
성취 7							1	.513 (<.001)	
적극적 참여 8								1	
일관성 있는 규제 9									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실태를 알아보고, 안전사고와 아동의 충동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계를 확인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 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한 번이상의 안전사고를 경험한 학생이 51.3%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의 사고를 경험한 학생도 8.1%로 나타나 높은 사고의 발생율을 나타냈고, 또한 사고로 인한 병원의 입원도 19.9%를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안전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학생이 52.8%이었고, 5회 이상의 안전사고 빈도를 나타낸 학생이 2.0%로 보고한 연구[15]결과보다도 5회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더 높게 나타났기에 안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안전사고의 종류로는 타박상과 칼에 베임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는 학교나 학교의 주변에서 33.5%가 발생하였고, 집과 집주변의 발생이 26.9%를 나타내었으며, 주로 안전사고는 60.4%가 학교와 집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나 집주변에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교나 집주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므로, 학교주변에 안전도우미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친 부위로는 팔, 다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이는 아동들의 활동이 많고 신체에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실시 수준은 부모님의 안전교육 횟수가 3-4회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학교에서의 교육 정도도 1년에 1-2회 정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의 빈도를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증가시킬 필요가 요구된다.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응급처치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전체 안전교육 내용 중에서 1.3%로 나타나 향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비디오, DVD상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향후 실습이나 체험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62.4%로, 여학생의 40.1%보다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이명선과 박경옥[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은 것이다. 성별과 관련된 국내·외 사고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전 연령층에

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7],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보고[9]를 지지하는 것이다. 사고발생 유형에서도 남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았던 반면, 여자는 집안에서의 사고가 가장 높았다는 보고[18]를 감안한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초등학교 연령층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성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19].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행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방법의 개발과 적용으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년별로는 4학년과 6학년보다 5학년에서 안전사고 발생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심은순[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21]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히려 저학년의 학생이 안전교육 효과와 주의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9]를 지지하는 것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안전에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생활태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차이에서는 학교생활태도가 좋지 않을수록 사고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혜원[22]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학생은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서, 안전실천에 대한 수긍과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안전교육 횟수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횟수가 증가할수록 안전사고 발생율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전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안전사고 예방행동 실천률이 높았다는 연구[23]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충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고 발생 유무의 차이를 보면, 사고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충동성이 1점 정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동성의 도구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다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하위 영역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통제의 태도, 과보호적 태도, 성취적인 태도일수록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이 낮게 나타났는데 아동의 안전사고발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안전사고발생과 충동성, 어머니의 양육태

도의 하위 척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안전사고는 권위주의적 통제태도와 과보호 태도, 성취태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인 통제 태도와 과보호적태도이고, 성취적 태도일수록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은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는 제한이 있었으나, Schwebel, Brezaussek과 Ramey[24]가 부모의 긍정적인 자녀양육행동의 결핍이 유아의 상해 위험간의 관계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이는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교육하는 방법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한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주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것[2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인 통제태도, 과보호적 태도, 성취적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예방프로그램 개발 시 어머니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아동의 충동성 관계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은 사물에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이라서[8] 자제력이 약하며 기분이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보고[26]를 토대로 하여,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율과 충동성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나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초등학생의 사고 발생율은 51.3%로 높았으며, 사고종류로는 타박상과 칼에 베임이 가장 많았고, 학교와 학교주변의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친 부위는 팔, 다리의 부상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냈다. 부모님의 안전교육 횟수는 3-4회 정도로, 학교에서는 1-2회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으로는 응급처치가, 교육방법으로는 비디오, DVD상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은 6학년으로, 남학생이고, 학교생활태도가 즐겁지 않은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았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에서 권위주의적 통제 태도, 과보호적 태도, 성취적 태도와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초등학생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와 충동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강원도 일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References

- [1] Carlsson, A., Karlson, E. D., Hakansson, A., Uden, G. "Compliance with child accident precautions by child health nurses". *Journal of Child Health Care*, Vol.10, No.2, pp.149-159, 2006.
- [2] Lee, M. S.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afety concerns affecting students' safet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2, No.4, pp.41-56, 2005.
- [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http://www.nso.go.kr>.
- [4] Jun, C. O. "A study of school accidents around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97.
- [5] Kim, E. J.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and improvement method of safety accidents of elementary school's fac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8, No. 2, pp. 1-8, 2007.
- [6] Kim, A. Y.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 Bakhaksa, 2003.
- [7] Swell, K. H., Gainess, S. K,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hood safety education". *Pediatric Nursing*, Vol.19, No.5, pp.464-466, 1993.
- [8] Kwon, M. K, Kim, H. W. Ahn, H. Y. & Lee, J. W.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 11, No.1, pp. 132-141, 2005.
- [9] Hong, S. W. Kim, J. S. Hyun, H. J.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 6, pp.260-269, 2011.
- [10] Heo, S. C,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9, pp. 504-513, 2010.
- [11] Kim, K. S. The related factors of safety behaviors and accid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08.
- [12] Park, S. Y. &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8, No.1, 141-156, 1990.

[13] Barrett, E., Patton, J., Olsson, N, Saker, G., Impulsivity and paced tapping," Journal of Motor Behavior, Vol.13, pp. 286-330, 1981.

[14] Lee, H. S, "Impulsiveness test, Korea guidance", Seou.l, 1992.

[15] Bae, J. Y. "Development of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9, No.2, pp.162-172, 2003.

[16] Lee, M. S., Park, K. O, "School safety education factors predicting injury prevalence among Korea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1, No.2, pp.147-165, 2004

[17] Ellen Visser, Ysbrand. "Accident proneness, does it exit ? A review and meta-analysi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006.

[18] Kim, J. Y. "A study on the safety behavior and safety consciousness of the prim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01.

[19] Lee, H. J. "Characteristics of risk behavior related to the school safety accident between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20] Sim, E. S, "Safety-awareness, safety-practice and accident occurrence among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18, No.2, pp. 258-275, 2004.

[21] Lee, H. Y., Woo, J. W, Kim, I. Y, "Research on the cognition and education of safety f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8, No.3, pp.59-75, 2005.

[22] Kim, H. W.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safety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2.

[23] Paek, K. W, "A diagnostic study of safe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based on PRECEDE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8, No.1, pp.35-47, 2001.

[24] Schwebel, D., Brezausek, C., & Ramey. C. "Interactions between child behavior patterns and parenting: Implication for children's unintentional injury risk".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29, pp.93-104, 2004.

[25] Kim, H. 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yle, strategies for teaching about home safety and children`s injury risk behavi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1, pp.81-99, 2008.

[26] Song, J. C. "A study of impulsiveness change of delinquency juvenile using group-work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kmin University, 1996.

정 도 영(Do-Young Jung)

[정회원]



- 1981년 2월 :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학과 (공학석사)
- 1989년 2월 :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 1983년 3월 ~ 2005년 2월 : 삼척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 1996년 ~ 1997년 : 오하이오 주립대학 방문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방재설비, 소방방재, 산업재해

이 영 미(Young-Mee Lee)

[종신회원]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재해간호, 응급간호